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9.06.15



제 1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2019년 4월 26일(금)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소재 키르기스 한국대에서 코리아코너 개소식과 제 1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제 1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에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대학생 32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재를 펼쳤다. (관련기사 p.2)

키르기스스탄
(관련기사 pp.2-3)

투르크메니스탄
(관련기사 p.4)

카자흐스탄 1
(관련기사 pp.5-6)

카자흐스탄 2
(관련기사 pp.7-8)

제 16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퀴즈대회, 제 1 회 대구 카톨릭대 한글백일장, 2019 한국의 날 행사 외

제 4 회 한국주간, 제 10 회 한국어말하기대회, 김정숙 여사 방문

나자르바예프대 씨앗형사업 선정,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국 문화의 날, 동카자흐 한국어경연대회 외

제 10 회 해외한국사능력검정특별시험, 2019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제 2 회 한국여행 기획공모전 외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키르기스스탄

제 1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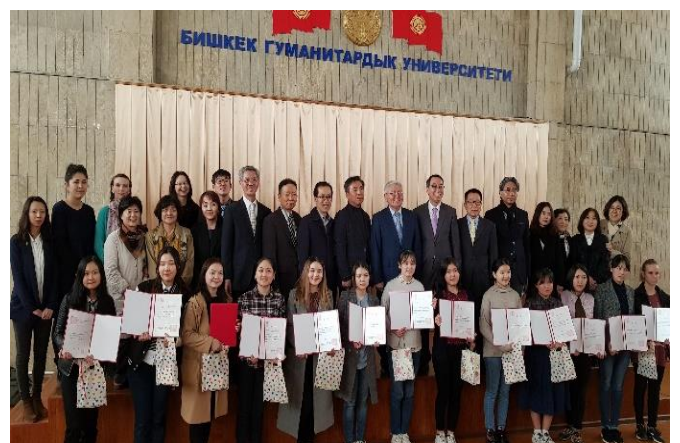
2019년 4월 26일(금) 키르기스 한국대에서 코리아코너 개소식과 제 1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주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이 후원한 키르기스 한국대의 코리아코너는 키르기스 국립대의 한국센터, 키르기스 기술대의 한-키르기스 정보접근센터, 키르기스 국립도서관의 코리아코너, 비슈케크 인문대의 코리아코너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설되었으며, 한국문화 보급의 실질적인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코리아코너 개소식에 이어 제 1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가 코리아코너에서 진행되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올림피아드에 참여한 32명의 학생들은 작문과 말하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향후 한국학 전공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대회 결과 나지미딘 키지 쿠무샤이(오슈 기술대)가 대상, 예로미나 엘레나가 최우수상, 우발리에바 아나르(이상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가 우수상, 예르킴바예바 닷카임(키르기스 한국대) 외 4명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코리아코너 개소식과 한국학올림피아드에 참석한 하태역 대사는 축사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 및 한국학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문화, 한국학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되었”음을 것을 강조하고, 이런 점에서 본 코리아코너와 한국학올림피아드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제 16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퀴즈대회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교수협의회(회장 김창석)와 비슈케크 한국교육원(원장 김대관)이 주최하고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가 주관한 제 16 회 키르기스스탄 대학생 한국학퀴즈대회가 지난 3월 30일 비슈케크 인문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본 퀴즈대회는 키르기스스탄 소재 각 대학에서 한국어(학)학과 및 제 2외국어(부전공)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다.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한국학 분야에 걸쳐 출제된 문제를 미리 공부한 학생들에게 행사 당일 100여 문제를 한국의 골든벨 방식으로 출제한다.

이날 행사에는 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 국립대, 아라바예프대, 언어문화대, 법률대, 농업대, 케인대, 키르기스 한국대, 중앙아시아 한국대, 오슈 기술대 등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공부하는 대학생과 한국학 관계자 25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경연 결과 대상은 아클베코바 베르메트(아라바예프대), 최우수상은 예르킴바예바 닷카임(키르기스 한국대), 3등은 나지미딘 키지 쿠미샤이(오슈 기술대), 4등은 줄도시베키지 주라, 5등은 타스타노바 장울(이상 키르기스 한국대)이 차지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제 1 회 대구가톨릭대 한글백일장

2019년 4월 12일 아라바예프대 대강당에서 대구가톨릭대가 주최하고, 아라바예프대와 비슈케크 세종학당이 주관한 제 1 회 키르기스스탄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글백일장이 개최되었다. 본 백일장을 위해 대구가톨릭대 방문단이 직접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였다. 식전행사로 아라바예프대 총장의 환영사와 하태역 주키르기스스탄 대사의 축사에 이어 다양한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본 백일장의 공정성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백일장의 주제는 행사 당일 발표를 하였는데, 주제는 ‘가족’이었다.



찾아가는 한국 경제문화 교실

키르기스 한국대는 2013년부터 진행해 온 찾아가는 한국 경제문화 교실을 2019년 봄학기에도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한국 경제문화 교실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경제발전상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키르기스 한국대학 교수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구성하여 비슈케크 및 인근의 추이주 쉬콜라(초중고교)를 직접 방문하여 행사를 진행한다. 키르기스 한국대의 전문팀은 세리쿨로바 미나라, 백태현, 베르메트 교수를 주축으로 사물놀이패(13-15명), 전통한국무용팀(5-8명), K-pop 1명, K-pop 댄스팀(5-8명)과 그 외 행사 진행요원으로 구성된다. 행사 전문팀은 가능하다면 모든 방송 및 영상 장비, 기타 행사에 필요한 장비 및 악기 등을 직접 가지고 각 학교를 방문한다.



2019년 한국의 날 행사

2019년 4월 7일(일) 키르기스 국립미술관에서 로자 오톨바예바(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재단이 주최하고 주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이 주관한 한국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KOICA, 산업인력공단, 비슈케크 한국교육원, 비슈케크 세종학당, 한인경제인협회, 키르기스 한국대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사물놀이, 부채춤 등 전통문화공연, K-pop 공연, 한복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키르기스 한국대는 개막식 행사는 물론 단독 부스를 마련하여 한국문화 및 대학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특히 재학생들은 4월 5일부터 28일까지 국립미술관 내에 마련된 상설 한국관의 안내요원으로도 활약을 하였다.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과 민속체육대회

2019년 5월 18일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교수협의회(회장 김창석)와 비슈케크 한국교육원(원장 김대관)이 주최하고 키르기스 법률대와 키르기스 한국대가 주관한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과 민속체육대회가 우센바예바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비슈케크 소재 한국어(학)를 전공 및 부전공(제 2 외국어)으로 배우는 230여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투르크메니스탄

제 4 회 한국주간

2019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제 4회 한국주간 행사가 투르크메니스탄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 동양어학부 건물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주간 행사를 위해 한국어과 전체 학생들은 동양어학부 건물의 1층 복도에 봄꽃 나무를 색종이로 장식하여 세우고 한국 관련 사진과 태극기로 복도를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였다. 첫째 날에는 사물놀이 전통 악기와 한복을 전시하고 한국 관련 비디오를 상영하였다. 한식 코너에서는 김밥을 만들어 다른 학과 학생과 교원들에게 대접했다. 둘째 날에는 한복을 입어 보는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다. 또한 젓가락질하는 게임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이에 참가한 학생들의 수도 많았다. 특히 젓가락 문화는 투르크메니스탄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주간 셋째 날에는 K-Pop 비디오를 상영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주간 행사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제 10 회 한국어말하기대회

2019년 5월 11일(토) 제 10회 한국어말하기대회가 투르크메니스탄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본 대회는 아자디대 한국어과가 주관하고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과 투르크메니스탄 주재 한국기업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제 10회 말하기대회는 작년과 같이 진기훈 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작년에 이어 동일하게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어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초급)과 '미래의 과학'(중급)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각각 발표하였다. 또한 사물놀이 공연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했으며 탈춤, 전래동화 "황소가 된 게으름뱅이" 연극, '퀴시매티' 투르크메니스탄 전통춤 등 두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대회도 많은 한국인 귀빈과 한국어과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본 대회는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김정숙 여사 방문

2019년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하였으며, 17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를 방문하였다. 러시아어학부 건물에서 아자디대 총장과 부총장을 비롯하여 투르크메니스탄 다과를 든 한국어과 학생들이 김정숙 여사를 맞이하였다.



김정숙 여사는 한국어과 교실로 들어가 한국어과 학생들과 함께 앉아 단어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사와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여사는 한국어로 말하는 투르크메니스탄 학생들을 보며 매우 감동하였다. 여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 씨앗형사업 선정

나자르바예프대는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씨앗형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카자흐스탄의 수도에 사회과학 분야의 한국학 연구를 활성화하고 알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고희운 교수(정치외교)가 책임자로 사업을 이끌며, 박천호(정치외교), 김인경(경제학), 플럼리(언어학) 교수가 함께 참여한다. 2018년 가을학기부터 어문학과 내에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신설하였으며, 2019년 가을학기부터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객원교수도 1명 파견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과학분야의 교육을 위해 “한반도의 국제정치학”, “동아시아 갈등과 협력”, “한국 경제발전 연구”와 같은 정치, 경제학 과목도 신설하였다. 학술부문에서는 참여 교수진들의 전공분야에 따라 (1) 한국의 정치참여와 카자흐스탄 민주화 가능성, (2)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과 북한 핵문제, (3) 한국 경제발전모델이 카자흐스탄에 주는 교훈의 세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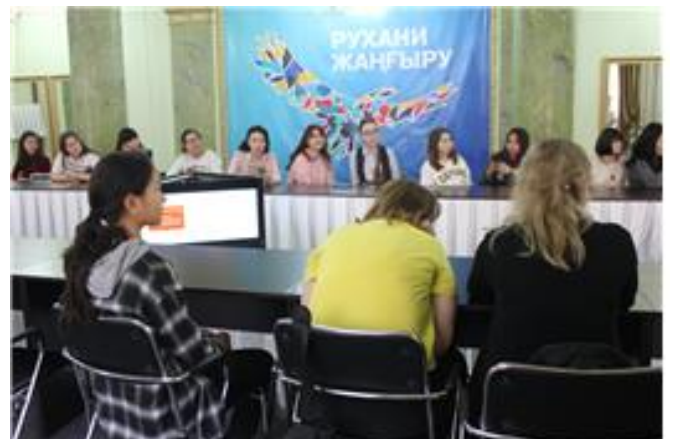
한국 경제세미나

2019년 4월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사업팀은 한국의 경제학자를 초청하여 한국 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민수 교수(성균관대)는 zero-pricing 마케팅이 시장경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고, 주하연 교수(서강대)는 한국의 e-커머스가 소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발표하였다.



한국학 토크콘서트 K-Talk@NU

나자르바예프대는 2019년 봄학기부터 한국학 토크콘서트 K-Talk@NU를 시작하여 매월 1회 본교 학생들에게 한국학을 소개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K-talk는 기존의 딱딱한 강의나 세미나 형식을 벗어나 많은 학생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크콘서트는 사업팀의 연구결과는 물론 본교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과 의문에 대해서 한국학 교수들이 직접 설명해주고 학생들과 함께 발전시켜나가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국 유학 설명회

2019년 3월 2일 동카자흐스탄 다민족회관에서 동카자흐스탄 지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교사모임 주최로 “한국 유학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주제로 한국 유학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동카자흐스탄 한국어교사모임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유학 생활 전반과 외국인으로서 입학 정보를 알아보고 특히, 장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정과 준비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했다.

카자흐스탄

한국 문화의 날

2019년 2월 14일 크질오르다 국립대 학생공전에서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년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후원을 받아 일 년 여의 기간을 거쳐 준비되었다. 김홍수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와 크질오르다 국립대 전 총장이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한 이 행사에는 쉬콜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크질오르다 주민들을 초청되었다. 김홍수 총영사의 “한국 역사 및 발전상”에 대한 특강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 퀴즈대회, 한국문화체험, 한국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한국의 음식, 전통놀이, 사물놀이, 한복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들이 준비되어 행사에 참석한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어능력시험 및 동포간담회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국어학과는 2017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중간 숙달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정비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응시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여 준 덕분에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에 2018년 10월 21일 9명의 학생이 제 60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희망하던 성적을 거두었고, 2019년 4월 21일에는 10명의 학생이 제 63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역시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2019년 4월 2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에 맞추어 알마티에서 동포간담회가 열렸는데,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국어학과에서 두 명의 학생이 초청받았다. 이에 대표로 참석한 주 니나와 아부바키르 누르자말은 직접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였다.



제 2회 동카자흐스탄 한국어경연대회

2019년 3월 2일 동카자흐스탄 오스케멘 다민족회관에서 제 2회 한국어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경연대회는 동카자흐스탄에 있는 4개 한국어 교육기관(동카자흐 국립대, 광성컬리지, 문화학교 한국어반, 옥스퍼드 한국어반)의 학생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신들의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대회는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경연대회 후에는 행사를 기념하는 기념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대회를 위해 특별히 초청되어 이루어진 사물놀이와 고려인 할머니들의 민요, 신나는 K-pop 댄스로 대회장 분위기를 고조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동카자흐스탄 한국어교사모임은 지역 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동기 부여와 흥미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

제 10 회 해외한국사능력검정특별시험

2019년 6월 2일 카자흐 국립대 동방학부 대강당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고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와 알마티 한국교육원이 공동으로 조직한 제 10 회 해외한국사능력검정특별시험이 치러졌다.

카자흐스탄에서는 2007년 제 1 회 능력시험 이후 10 여년 만에 치러진 행사로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 한국학에 관심이 있는 약 400 명이 응시하였다. 연령과 국적에 관계없이 희망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고, 편의를 위해 문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동시에 출제되었다.

최종결과는 6월 중순에 나올 예정인데, 100 점 만점에 60 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인증서가 발급된다. 또한 고득점자 10 명을 선발하여 10 월 말에 한국에 방문하여 역사문화탐방의 기회를 부여한다.

해외한국사능력검정특별시험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매우 큰 만큼 앞으로도 본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한다.



한국어경시대회

2019년 3월 14일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 주알마티 총영사관이 후원하여 한국어경시대회가 치러졌다. 경시 유형은 객관식 테스트와 글짓기였다. 기존 방식과 달리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수상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학년별로 경시대회가 치러지고 수상자가 배출되었다. 부상으로 큰 금액이 주어진 것은 아니나 실력을 뽐내고 견주어보는 가운데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동양학올림피아드

2019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카자흐 국립대 동방학부에서 카자흐스탄 동양학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 참가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한국학 분야(역사, 언어)의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입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금과 상품이 지급되었다. 동양학올림피아드는 명실공히 카자흐스탄 최고의 지식겨눔의 장이며, 한국학도에게는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제고시켜주는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다.



대학생학술대회 "파라비 알레미"

2019년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카자흐 국립대에서 대학생학술대회 "파라비 알레미"가 개최되었다. 본 대회에는 한국학과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도 참가를 했으며, 우정과 화합, 지식 교류의 장이 되었다. 행사 결과 한국학과 2학년 투르스마간베토바 쿤드즈가 1 등을, 4학년 사파예바 엔리크가 3 등을 차지하는 기쁨을 토했다.

카자흐스탄

2019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2019년 2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이틀에 걸쳐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를 개최하였다. 세계언어대 본관에서 개최된 경시대회는 카자흐스탄 교육부가 주최하는 외국어올림피아드(Kazakhstan Republican Student Olympiad in Foreign Languages)의 일환으로 열렸다. 본 대회에는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9개 언어에서 어문학, 통번역, 복수외국어 3개 영역 25개 부문에 걸쳐 3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였다.

전체 개최식은 22일 제 1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개최식을 마치고 언어별로 대회가 진행되어 어문학부문의 테스트와 작문이 실시되었고, 통번역부문은 번역 시험이 실시되었다. 23일 어문학부문은 박 넬리(세계언어대 중핵대학사업단장), 김현민, 유지연(이상 주알마티 총영사관 영사), 김 올레크(법무법인 CIS Group 대표), 이 타티야나(카자흐스탄 한국어센터)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외교관계’를 주제로 발표한 참가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하였다. 통번역부문은 채 예브게니야(Unidom Kazakhstan 대표), 전 엘레나(총영사관 통역), 이재욱(BLJ Group), 주마베코바 마르잔(현대병원), 누르술타노바 마디나(KNOC Caspian LLC)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참가자들의 통역을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어문학부문의 1등은 예르제토바 아루잔(세계언어대 2학년), 통번역부문의 1등은 두이센베코바 누르굴(세계언어대 4학년)이 차지하였다. 1위 2명 노트북 컴퓨터, 2위 2명 스마트워치, 3위 2명 외장하드(2TB), 장려상 4명 15,000 텡게씩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주알마티 총영사관, 법무법인 CIS Group, Unidom Kazakhstan,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총동문회 등에서 상품과 상금을 후원하였다.

제 2 회 한국여행 기획공모전

한국관광공사 알마티사무소(소장 성필상)는 2019년 4월 13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에서 제 2회 한국여행 기획공모전(My Perfect Korea Travel Plan)을 개최하였다.

이 공모전은 카자흐스탄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현지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관광의 매력을 대학생의 참신한 관점에서 찾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나아가 공모전 참가자를 서포터즈로 모집해 친한 네트워크 구축에 목적이 있다.

총 53개팀이 참여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5개 팀이 진출하여 자신들의 한국여행 기획을 프레젠테이션하였다. 공모전 우승자에게는 본인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 여행의 기회가 제공되고, 이들의 한국 여행 영상은 한국 관광 홍보에 활용된다. 1등을 차지한 나레케시 아르누르, 이브라기모바 발라우사(세계언어대) 팀은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여행을 기획하였다.

